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St. Stephanus Korean Catholic Community at Diocese of Wilmington
발행인: 김태근 베드로 주임신부 / 편집: 홍보분과 / 교육관•사제관: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 전화: (302) 998-7609
Homepage: www.delawarekcc.org / Email: delawarekcc@gmail.com

2019 년 2 월 3 일 (다해)

연중 제 4 주일

주일미사	주일 오전 11 시 St. Paul's Roman Catholic Church 주소: 209 Washington Street Delaware City, DE 19706		
평일미사	성월이 있는 달 (3,5,6,9,10,11 월) 매주 수요일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R.C. Church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교육관 성당		
성시간	성월이 있는 달 첫째주 평일미사때 St. Paul's R.C. Church		
성서 100 주간 모임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1 시 ,오후반: 매주 목요일 오후 7 시 30 분 교육관 성당		
레지오 마리애	매주 화요일 오후 7 시 교육관 성당 주소: 2710-2712 Duncan Road Wilmington, DE 19808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일 오후 6 시 교육관 성당		
성요셉회 (시니어 아카데미)	성월이 있는 달 (3,5,6,9,10,11 월)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 평일미사후 교육관 성당		
Youth Group 모임	주일미사후 St. Paul's 사제관 2 층		
고해성사	미사 전	봉성체	신청시
유아세례 및 축성	신청시	혼인면담	신청시
Salisbury 공소미사	둘째• 네째 토요일 오후 7 시 30 분 Holy Redeemer (Church Bi-State Blvd. at Chestnut St. Delmar, MD21875)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사목회장: 정지상 대건안드레아	전례분과: 이상헌 요한•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998-7609	☎ (215) 313-8854	☎ (302)893-4569, ☎ (302) 893-8002

**** 오늘의 전례 ****

[입당송] 시편 106(105),47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제1독서] 예레 1,4-5.17-19

[화답송] 시편 71(70),1-2.3과 4ㄱㄷ.5-6ㄱㄴ.15ㄴㄷ과 17 (◎ 15ㄴㄷ참조)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옵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

[제2독서] 1코린 12, 31-13,13<또는 13,4-13>

[복음 환호송] 루카 4,18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복 음] 루카 4,21-30

[영성체송]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입 당	16번	온 세상아 주님을
봉 헌	218번	주여 당신 종이
성 체	176번	믿음 소망 사랑
	158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파 견	46번	사랑의 송가

미 사 전 례

날 짜	2 월 3 일	2 월 10 일	2 월 17 일	2 월 24 일	3 월 3 일	3 월 6 일
전 례 력	연중 제 4 주일	연중 제 5 주일	연중 제 6 주일	연중 제 7 주일	연중 제 8 주일	재의 수요일
해 설	김진숙	김승희	윤성숙	공정임	박상진	오후 7 시 30 분 St. Paul's 성당
제 1 독서	강선유	Andrew Dickenson • 서연준 글라라 가정	권금자 소피아 가정	권의진 빈첸시오 • 권민숙 젬마 가정	강영길 요셉 • 권향자 마리아 가정	
제 2 독서	강지유					
예물 봉헌	조슬기,송유준					
복 사	김승희,강일호					
친 교	설전체친교					

연중 제 4 주일

[가톨릭신문-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특별기획]

‘가정사목과 복음화’ 2. 변화하는 가정- 위기와 도전

독신·한부모·재혼… 가족 다양화에 따른 ‘열린 사목’ 필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를 겪어온 한국의 가족 구조와 기능은 급변했다. 가족 결속력도 약화돼 인구 1 천명당 이혼 건수는 1990 년 1.1 건에서 2013 년 2.3 건으로 증가했다. 이혼율 증가에 따라 재혼율이 늘고, 재혼가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오늘날 가정, 가족제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했다. 이러한 변화를 교회는 가정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과는 엇나가는 것으로 평가하며, 따라서 교회는 오늘날 가정의 현실을 도전과 위기로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교회의 가정과 생명에 대한 교리적, 윤리적 가르침이 더 이상 신자들의 일상 삶 안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 의식은 단순히 교회 가르침의 수용을 강요하거나, 판단하고 단죄하려는 태도를 버리도록 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도전

2014 년 10 월 세계주교시노드 제 3 차 임시총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늘날 가정이 도전 받고 있음을 표명한다. 물론 오늘날 가정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간과하지 않지만, 가정에 변화를 가져온 사회-문화적 변화를 명확히 짚고 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의 유대를 왜곡시키고 가정의 구성원을 섬과 같이 여기게” 하는 ‘개인주의의 위험’을 지적한다. ‘가정을 짓누르는’ 사회경제적 현실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노동과 빈곤, 과중한 경제적 부담, 인구의 위기와 교육의 어려움, 새로운 생명에 대한 부담감, 짐으로 느껴지는 노인들의 존재 등 그 스펙트럼은 광범위하다고 말한다. 보편교회 전체의 사목 상황을 통찰하는 주교 시노드의 특성상, 보고서는 대륙과 지역별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들이 교회의 가정에 대한 가르침에 도전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현대 세계와 사회에서의 세속주의의 확산, 이혼 증가, 이주 문제, 여성 차별, 소아 성추행, 전쟁과 테러, 도시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의 요소로 간주한다. 또 현대의 문화적 경향을 주목하면서, 인터넷의 오용으로 인한 포르노의 확산과 육체의 상업화, 증가하는 별거와 이혼, 출산의 기피와 개도국에서의 강제적인 저출산 정책, 고삐 풀린 생명 기술의 발달 등도 가정에 대한 도전의 요소들로 짚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가톨릭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세계 여러 대륙의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사목적 상황과 사회적 환경은 과거에 없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교회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현실과 무관하게 유리되어 갈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가정의 변화와 위기 상황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를 겪어온 한국의 가족 구조와 기능은 급변했다. 지난 30 년 간 이성간의 합법적 혼인에 바탕을 둔 부계 중심의 혈연 가족이라는 가족 구조는 독신 가정, 한부모 가정, 자녀 없는 부부 가정 등 비정형적인 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큰 변화를 보였다. 3 세대 가족이 줄어들고 부부와 미혼 가족 중심의 핵가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함께 자녀 없는 부부 가정이나 부모나 자녀가 따로 사는 1 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지난해 9 월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 년간 1~2 인 가구의 큰 폭 증가와 4~5 인 가구의 지속적 감소가 두드러진다. 즉, 1990 년 1~2 인 가구는 22.8%에서 2010 년 48.2%로 증가, 4~5 인 가구는 58.2%에서 30.6%로 줄었다. 세대 구성도 크게 변화, 1 세대 가구는 10.7%에서 17.5%로 늘었지만, 2 세대 가구는 66.3%에서 51.3%로, 3 세대 이상 가구는 12.5%에서 6.2%로 줄었다. 통계청에 의하면, 혼인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의식 자체가 크게 변화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 자체가 1998 년 33.6%에서 2012 년 20.3%로 줄었다.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1997 년 73.7%에서 2012 년 46.3%로 급락한 반면, ‘자녀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의식은 1997 년 26.0%에서 2012 년 53.5%로 늘었다. 절반 이상이 혼인과 출산을 따로 떼어 생각하고 있

다는 반증이다.혼인연령도 높아져 남성 초혼연령은 1990 년 27.8 세에서 2013 년 32.2 세로, 여성 초혼연령은 1990 년 24.8 세에서 2013 년 29.6 세로 높아졌고, 그 여파로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12 년에는 1.16 명으로 인구 대체 수준 이하에 도달했다. 가족 결속력도 약화돼 인구 1 천명당 이혼 건수는 1990 년 1.1 건에서 2013 년 2.3 건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가족의 출현

한편 전통적인 가족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새로운 가족 형태들이 나타났다.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독신가족이 증가했다. 한국사회에 독특한 이른바 '기러기 가족'은 남성 독신 가족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조기 유학생 수가 10 만명을 넘었고, 매년 1 만여명이 출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늘어나는 무자녀 부부 가족은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직업활동에 참여해서 얻는 경제적 보수 및 사회적 안정과 여가 활동의 여유 등을 지향한다. 이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율이 늘고, 재혼가정들 역시 늘어난다. 동거 역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경제적 빈곤층에서 많았으나 최근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동거에 대한 지지는 중년층에서조차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이주민의 증가로 외국인과의 혼인이 늘어나 다문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미혼모 가족, 위탁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가족들이 점차 늘어나고, 특히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화됨에 따라 동성애 결합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의 변화, 위기 혹은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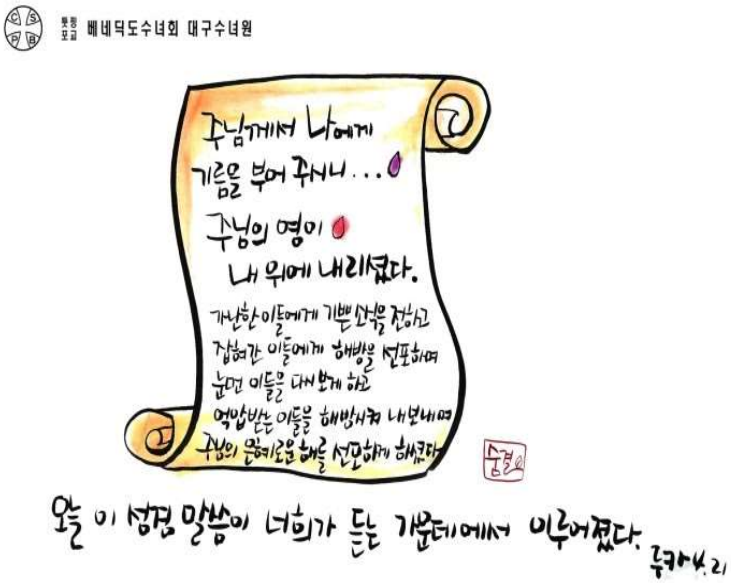
한편에서는 한국 가정의 급격한 변화를 가정의 해체나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다양화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든 가정이 과거의 형태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족이 지닌 고유하고 아름다운 역할과 기능은 분명히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혼인의 단일성과 불가해소성, 자녀 출산, 생명과 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단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강요로 보이지 않고, 참된 가정의 가치를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지침임을 바르게 알려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주임신부 **김태근 베드로**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소식

2019 년 성 스테파노 윌밍턴 한인 천주교 공동체 사목지침
-선교의 기초이며 못자리인 가정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 오늘(2월3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주님 봉헌 축일 초축성

오늘 (2월 3일) 주일미사때 각 가정에서 1년 동안 쓰일 초를 축성합니다. 미사후 신청하신 가정에서는 초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설 합동 연미사 봉헌

오늘 (2월 3일) 주일 미사때 세상을 떠난 조상, 친지, 은인들을 위한 합동 연미사가 봉헌됩니다. 연미사 지향 예물봉투는 미사시작전에 성당 입구에 바구니에 넣어주시고, 짧은 연도 안내 소책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사 후에 전체친교가 Parish hall에서 있습니다. 친교실 사용시 주차는 길 맞은 편 소방서 주차장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신자 성경필사: 4대 복음서에 등장한 예수님의 어록

기간: 2018년 10월부터~2019년 부활까지 **대상:** 전신자

■ 구역 재편성 명단은 주보별지로 첨부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우리 공동체에 새로 오신 민호식 • 민도순 형제자매님 환영합니다.

■ 소공동체 모임

구 역	일 시 • 장 소
1구역	2월 3일 (주일) 전체친교후 Parish Hall
2구역	2월 8일 (금) 오후 6시 교육관
6구역	2월 9일 (토) 김용상 스테파노 • 김중영 아녜스 가정 주소: 352 Cold Water Dr. Clayton, DE 19938 ☎ (201) 956-0734
5구역	2월 10일 (주일) 오후 2시 교육관

■ 가족 전례 및 친교 봉사

2월 10일부터 가족 전례 및 친교봉사가 시작됩니다. 미사전 해당 가정을 위한 묵주기도 1단을 바치게 됩니다. 가정별로 2주간 미사전 후에 간단한 전례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가정 전례봉사 담당(독서자, 복사) 명단은 해당 구역장님과 상의 하셔서 전례분과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봉사	봉사가정	전례교육
2월10일	Andrew Dickinson 가정	2월3일 미사후, 2월10일 미사전
2월17일	권금자 가정	2월10일 미사후, 2월17일 미사전
2월24일	권의진 가정	2월17일 미사후, 2월24일 미사전
3월 3일	강영길 가정	2월24일 미사후, 3월3일 미사전
3월10일	강일호 가정	3월3일 미사후, 3월10일 미사전

가족 친교 봉사 준비 대행 서비스(도넛 또는 빵, 다과구입)가능하니 총구역장 김신희 미카엘라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302) 893-3608

■ St. Paul's 청소 봉사

날 짜	청 소 봉사 구역
2월 10일	2 구역

■ 벼룩시장

일시•장소: 매주 미사후 친교때 St. Paul's 사제관

2월 10일부터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각 가정에서 쓰지 않는 물건 가져오셔서 필요한 교우분들이 사시고, 판매수익금은 성당 보수공사 기금으로 모아지게 되니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미사지향	
연미사	합동연미사 명단 별지 참조
생미사	김나영 줄리아나, 조원준 리차드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주일헌금: 1차 헌금: $ 535

2차 헌금(해외원조주일): $ 169

사제관 보일러 교체기금 현황 (총액: $2,243)
(구) 4구역: $43, 권금자 $1,000, 김일월 $500, 박건 $500 오영애 $200

교무금: 강일호(1월), 박용철(1,2월), 서연준(1,2월), 한기석(1월)

감사헌금: 이삼경($50)

* 미사 지향은 전례분과장 이상헌 요한 ☎ (302) 893-4569, 부분과장 이삼경 크리스티나 ☎ (302) 893-8002 님께 **수요일** 까지 신청 바랍니다.
* Check일 경우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Inc. (KCC)로 기입하시고, 교회 헌금은 Charitable Contribution 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역 재편성 (총 6 구역)

구 역	가 정
1 구역	**Andrew Dickenson 가정, 김광수 발렌티노 가정, 김국제 안드레아 가정, 김정일 하상바오로 가정, 민현우 예로니모 가정, 이명근 마지아 가정, 정수민 가정, 조용만 스테파노 가정**
2 구역	**권금자 소피아 가정**, 김기승 아타나시오 가정, **김건영 야고보 가정**, 김정호 스테파노 가정, **김정희 데레사 가정, 김택수 사도요한 가정, 김치영 라우렌시오 가정, 나희성 그라토 가정, 서행부 요셉가정, 송정섭 대건 안드레아 가정, 여승구 파스칼 가정**, **이행복 벨라지아 가정**
3 구역	고수성 요한 가정, **강주현 가브리엘라 가정, 김봉업 카타리나 가정**, 김희은 헬레나 가정, **민병묵 스테파노 가정**, 백월숙 사라 가정, 이인상 사무엘 가정, 이행열 프란치스코 가정, **박상진 베드로 가정, 박현걸 요한 가정, 윤여강 디모테오 가정**, 윤영호 베드로 가정, 이기준 파비아노 가정, **이루시아/김지애 아녜스 가정, 이수용 루가 가정**, 이종권 라파엘 가정, **임종수 안드레아 가정**, 조봉경 안젤라 가정, **조정원 레오 가정**, 황선원 요한 가정, **홍승표 레이몬드 가정**
4 구역	**강영길 요셉 가정, 강일호 스테파노 가정**, 김철훈 유스또 가정, **박춘분 스텔라/최영철 엘리시오스 가정**, 방국엽 대건안드레아 가정, **배덕효 안드레아 가정**, **엄종인 요한 가정, 임지용 바오로 가정**, 전영순 안젤라 가정, **정지상 대건 안드레아 가정, 정주영 아나 가정**, 조용하 마르티노 가정, 최진규 디모테오 가정, **한기석 라파엘 가정**, 한용웅 바오로 가정, 호순자 젬마 가정, 홍준석 바오로 가정
5 구역	김정윤 비오 가정, 김준철 안드레아 가정, **라양희 라파엘 가정, 박 건 알로이시오 가정, 박기승 레오 가정, 이덕수 보니파시오 가정, 이상헌 요한 가정, 임용주 스테파노 가정, 전광식 바오로 가정, 조원준 리차드 가정**
6 구역	**권의진 빈첸시오 가정, 김용상 스테파노 가정, 민호식 가정, 박용철 아킬로 가정, 송창훈 비오 가정, 양재련 스테파노 가정, 이맹자 안나 가정**, 장지혜 에스델 가정, 조장익 바오로 가정

2019 년 2 월 3 일 설 합동 연미사

1 구역 조용만 스테파노 가정 : 조갑의, 박동금, 조판규, 이순점

오은옥 아녜스 가정 : 김상은, 김소하

이명근 마지아 가정 : 이성조 마르코, 김영원 마리아 막달레나, 이만옥 베드로, 김춘배 모니카, 이동옥 바오로

안선자 데레사 가정 : 안문수 베드로, 박혜숙 율리아나

김광수 발렌티노 가정 : 김광진, 김광팔

김정일 하상 바오로 가정 : 김동철, 오영택

서연준 글라라 가정 : 서재수 요한, 이차분 안나

2 구역 서행부 요셉 가정 : 서정원 토마스, 김성춘 토마스, 이기삼,이수연 프란체스카

김치영 라우렌시오 가정 : 김문석 요셉, 김영혜 요안나

송정섭 대건 안드레아 가정 : 송인수 사도 요한, 류종현

김택수 요한 가정 : 심선봉 요셉, 이보옥 마리아, 심계택 베드로, 민보현 안나, 김태영

권금자 소피아 가정 : 김봉주 요한, 김광웅 베드로, 박상임 안나, 신수경 요세피나, 신수옥 마리아, 권영봉, 신연화

나희성 그라토 가정: 나일환, 김증산 모니카, 나상영, 남정임 마리아, 오응옥 요셉, 계상여 체칠리아

이행복 벨라지아 가정: 이우섭 세바스챤, 이흥섭 요한, 이재은, 심묘섭

여승구 파스칼 가정: 우숙자 아네스

3 구역 민병묵 스테파노 가정 : 민찬식, 김순애, 이원중, 한춘수, 이상훈

홍승표 레이몬드 가정 : 홍순원 안드레아, 이제형 에이든

이루시아 가정 : 이분도, 박마리아, 이정순 마리아, 김종국 요한, 오진근

박상진 베드로 가정 : 최용근 요셉, 이향우 말다, 김춘이 마리아, 박민수

조정원 레오 가정 : 윤동섭, 최종영 소화 데레사

4 구역 최영철 엘리시오스 가정 : 최종송, 김숙자, 최효순 요셉, 최기순

5 구역 임용주 스테파노 가정 : 이봉영 안토니오, 김분례 안나

박기승 레오 가정 : 윤관섭 마태오, 김은자 루시아

나양희 라파엘 가정 : 나기표, 임차녀, 김유정 ,김정웅

이상헌 요한 가정 : 이진준, 김순남, 한희태, 최금복, 이명자 베로니카

김우래, 유재희, 서원필

조원준 리챠드 가정 : 조용출, 강봉남, 박인서, 송창헌, 류갑순, 김비오, 김태년,

송재인, 송영자, 황해민, 송재훈

김준철 안드레아 가정 : 김관수 요셉, 송수덕 모니카,김현산 베드로, 이일진 바울라

김정윤 비오 가정 : 소찬봉 스테파노

6 구역 신균 데레사 가정 : 신명희 안당, 백마리아, 박성득 분도, 홍안나,신석균 바오로,

박용태 요셉, 박용만 발라바

이맹자 안나 가정 : 박수기, 이종식

송창훈 비오 가정 : 임복초, 이옥심, 박형남, 문윤도, 송복등, 김홍주, 이말희

홍준석 바오로 가정 : 송준 예로니모